

로마, 비전을 수립하다 - 넘버 나인

기초의 거부: 'The Daily' 논쟁과 재림교회 예언에서 진리 부정의 결과

Jeff Pippenger

2024-08-21

우리는 현재 재림운동의 역사 속에서 로마의 여러 상징들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들의 예언적 흐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니엘서의 '상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논쟁은 재림운동의 기초, '예언의 신'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자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러의 사역을 거절하는 것은 또한 하늘의 천사들이 밀러에게 준 교훈을 거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천사들은 1798년에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리면서 지식의 증가를 통해 산출된 기별을 밀러가 이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교황 권세의 드러남을 억제하던 세력(이교 로마)을 지목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음을 드러내며, 진리 사랑을 거부한 까닭에 거짓을 받게 된다. 그 거짓은 다시 그들 위에 강한 미혹을 가져온다. 거짓이 원인이고, 그들이 받는 강한 미혹은 결과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동기다. 그 거짓은 절대 진리를 믿는 자들과는 달리 성경 교리를 다원주의적으로 수용하는 선택을 가리킨다. 이것이 이사야가 바울의 강한 미혹을 단수의 미혹이 아니라 복수의 미혹들로 표현하는 이유다. 다른 부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절대 진리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로 식별한 사람들이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 너희가 내게 지으려는 집이 어디 있으며,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지었고, 이 모든 것이 있게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돌보는 이는 가난하고 마음이 통해하며 내 말에 떨리는 자니라. 소를 죽이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 같고, 어린 양을 제사하는 자는 마치 개의 목을 베는 것 같으며, 제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 같고, 분향하는 자는 마치 우상을 송축하는 것과 같도다. 참으로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였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나도 그들의 미혹을 택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 위에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말할 때 듣지 아니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말씀에 떨리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라' 하였으나, 그가 너희의 기쁨이 되시려고 나타나실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사야 66:1-5.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이며,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기치로 상징되는 자들이다.

그가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이사야 11:12.

하나님은 부정한 제물을 드리는 무리가 자신들이 지었다고 주장하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 바로 자신임을 밝히신다. 그들이 '여호와와 성전은 이것들이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이 의지하는 것도 바로 그 집이다.

여호와와 그의 집 문에 서서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이 문들로 들어와 여호와께 예배하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것들이 여호와와 성전이라, 여호와와 성전이라, 여호와와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7:2-4.

거짓된 말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거짓을 믿는 자들이다. 주께서 지으신 집은 그가 또한 놓으신 기초 위에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기를 거부한 부류는 자기들의 길을 택하고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였다. 예레미야가 그 안에서 걸어야 할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길들'과 '가증한 것들'을 복수로 택하였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쉬를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않겠다 하였느니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워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않겠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알라.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위에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니라.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도리어 그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스바에서 내게 오는 향과 먼 나라에서 오는 단 갈대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의 번제는 내가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제물도 내게 기쁘지 아니하니라. 예레미야 6:16-20.

열다섯째 장에서 예레미야는 귀가 있으나 청종하지 않는 악한 회중을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부른다. 이 회중에게는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의 역사 속에서도, 또 셋째 천사 기별의 역사 속에서도 "파수꾼"이 주어졌으나, 그들은 옛 길, 곧 선한 길로 행하기를 거부했다. 대신 그들은 "길들"을 걸었다. 이런 이유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여러 미혹을 택하실 것이라고 밝힌다. 이는 그들이 옛 길이라는 절대적인 길 대신에 다수의 거짓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증언과 같이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의 예배는 주께서 거절하신다. 화이트 자매는 이사야의 복수의 미혹을 바울의 "강한 미혹"과 직접 연결시키며, 그것을 주께서 그의 집을 그 위에 세우셨고 또 세우고 계시는 그 기초, 곧 기초 진리들을 거절하는 맥락 속에 둔다.

걸모습 너머를 보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께서, 큰 빛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자신의 도덕적·영적 상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 정녕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스스로 택하였고, 그들의 영혼은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한다. '나도 그들의 미혹을 택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렀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였을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시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그러나 불의를 기뻐하였다.' 이사야 66:3, 4; 데살로니가후서 2:11, 10, 12.

하늘의 교사께서 물으셨다: '실제로는 세속적 방침에 따라 많은 일을 도모하며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옳은 기초 위에 세워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들이신다고 가장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미혹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오, 그것은 큰 기만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미혹이다. 한때 진리를 알았던 자들이 경건의 모양을 그 영과 능력으로 착각하고; 자신들이 부요하여 재물이 늘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실상은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말이다.'

하나님은 자기 옷을 흠 없이 지키는 신실한 종들을 향해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치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다. 철저한 회개가 없고, 사람들이 자복으로 마음을 낮추어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대열 가운데 정결케 됨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며 안일함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진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금은 불로 연단되었고, 우리의 의복은 세상으로부터 점 하나 없이 깨끗하다'? 나는 우리의 스승께서 소위 의의 옷을 가리키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그것들을 벗겨 버리시고, 그 아래의 더러움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리고는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어떻게 가식적으로 그들의 더러움과 품성의 부패함을 덮어 감추었는지 보지 못하겠느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내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신적 임재와 영광이 떠나 버린 곳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있고, 힘이 부족하다.'" 증언, 제8권, 249, 250.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조롱자들의 모임은 어리석은 처녀들인 라오디게아인들로 지목된다.

"미련한 처녀들로 대표되는 교회의 상태는 라오디게아 상태라고도 불린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8월 19일.

미련한 처녀들은 한밤중 외침이 임할 때 기름이 없음을 드러낸다. 그때 그들은 어느 길을 택할지에 대해 자신들이 이전에 내렸던 선택과 일치하는 미혹을 받으면서, 예레미야가 말한 옛 길을 거절한다. 옛 길에는 쉼과 새롭게 함이 있으며, 그 쉼과 새롭게 함은 곧 늦은 비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져 가는 때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백성 위에 임했으며, 그들은 그들의 일을 마치고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늦은비, 곧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을 받았고, 산 증언이 부흥되었다. 마지막 큰 경고가 모든 곳에 울려 퍼졌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세상 거민들을 뒤흔들어 격분하게 하였다. 초기문집, 279.

성령이 부어지실 때,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진리 대신 거짓을 믿는 것을 택한 라오디게아의 어리석은 처녀들 위에 강한 미혹이 부어진다.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율법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예언적 규례들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복음에 담긴 크고 영원한 진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부지런히 탐구함으로써 드러난다. 신적 스승께서는 진리를 겸손히 구하는 자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진리들이 그에게 알려진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인도받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지식의 길은 없다. 구주께서 약속하시기를, '그가,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주의함으로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감추어진 보물을 찾듯이 진리를 찾으라는 권면을 받는다. 주께서 진리를 참으로 구하는 자의 총명을 열어 주시며,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하신다. 이는 시편 기자가 율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도록 그의 눈을 열어 달라고 구할 때 뜻한 바가 바로 이것이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갈망할 때, 마음은 더 나은 세계의 영광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오직 신적 교사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법을 배운다. 이는 경건의 비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안식일학교 일꾼, 1909년 12월 1일.

늦은 비의 기별이나 그 방식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들이 내 말에도, 내 율법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버렸다"고 말했을 때, 그는 호세아와 뜻을 같이한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너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호세아 4:6

어리석은 자들이 거절하는 것은, 다니엘이 끝의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밝힌 지식의 증가이다. 1798년의 끝의 때에, 그리고 1989년의 끝의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서로 병행하는 그 두 세대의 기초를 세우시는 데 사용하기로 택하신 사자를 통해 공식화된 지식의 증가가 있었다. 그 기초적 진리들은 각 시대의 택한 사자들에게 계시된 어떤 성경적 규칙들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그 기초적 진리들은 예레미야가 말한 옛 길이고, 결국 한밤중 외침과 큰 소리 외침 기별의 기쁨을 대표하는 진리들이다. 늦은 비는 십사만 사천인의 인침 역사 속에서 한밤중 외침 기별을 산출하고, 그 후에는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양 무리를 모으는 역사 속에서 큰 소리 외침 기별을 산출한다. 늦은 비는 기별이기도 하고 그 기별을 산출하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다니엘의 지식의 증가는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시작한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이는 이 말들이 끝날 때까지 봉함되어 감추어질 것임이라. 많은 이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라. 악한 자들 가운데는 깨닫는 자가 없겠으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 12:9, 10.

다니엘서의 악인들은 자신들의 라오디게아적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마태복음의 미련한 처녀들이다. 그들의 상태는 지혜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이 모두 시험을 받는 다니엘의 세 가지 시험의 세 번째 단계에서 드러난다. 마지막 시험은 심판이 집행되는 때이며, 두 부류 모두 자신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다시금 이러한 비유들은 심판 후에는 더 이상의 은혜의 기간이 없음을 가르친다. 복음 사업이 마쳐지면 곧바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분리되고, 각 부류의 운명은 영원히 확정된다." 실물교훈, 123쪽.

세 번째 시험에서 드러나는 품성은 예배자들이 어리석은 라오디게아인인지, 지혜로운 빌라델비아인인지를 가려낸다. 최종 시험은 늦은비의 방법론에 의해 밝혀진 늦은비 기별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늦은비의 방법론을 거절하는 것은 한 영혼을 늦은비 기별을 이해할 수 없는 처지에 놓는다. 그 기별과 방법론은 이사야에 의해 최종 시험으로 규정된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랴? 갓 젖을 댄 자들, 어미 젖에서 막 떼어낸 자들이냐? 이는 교훈 위에 교훈, 교훈 위에 교훈; 줄 위에 줄, 줄 위에 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혀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를 쉬게 할 안식이요, 이것이 새롭게 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교훈 위에 교훈, 교훈 위에 교훈; 줄 위에 줄, 줄 위에 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 되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서지고, 울무에 걸려 사로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계약을 하였으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노니, 시험된 돌이요 귀한 모퉁잇돌이요 견고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해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공법을 측량줄로 두고, 의를 다림추로 삼으리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리고, 물이 그 은신처를 넘치리라. 너희의 사망과의 언약이 폐하여지고, 스올과의 계약이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짓밟히리라. 이사야 28:9-18.

성경 예언의 "넘치는 채찍"은 미국에서 곧 임할 일요일 법령으로 시작하는 점증하는 일요일 법령 위기이다. 진리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해 지식의 증가를 거절하는 어리석고 악한 라오디게아인들은, 다른 것들 가운데서도 성경 예언에서 로마의 한 상징에 대한 거짓된 정의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넘치는 채찍"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예언적 기초에 근거한 거짓된 예언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기초는 모래 위에 세워졌는데, 모래는 잘게 으깬 무수한 작은 돌들을 나타낸다. 지혜로운 자들의 기초는 유일한 반석 위에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내가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세우는지 주의할지니라. 이미 놓여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느니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를 세운다면, 각 사람의 일은 드러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낼 것임이라.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3:10-13.

거짓된 기초들은 참된 기초와 대조되는데, 그 참된 기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이다. 참된 기초인지 거짓된 기초인지는 다니엘의 세 가지 시험 중 마지막 시험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불로 드러난다', 곧 자기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언약의 사자의 불로 드러난다. 그때 사망과 언약을 맺은 무리가 드러나고, 생명의 언약을 맺은 무리도 드러난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오실 것이며,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누가 그가 오시는 날을 견디겠으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불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음이라. 그는 은을 제련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로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정결케 하여 그들을 금과 은 같이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움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같이, 이전 해들과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리니, 점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내가 속히 증인이 될 것이요, 품꾼의 삯을 억누르는 자들과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들과 나그네의 권리를 빼앗는 자들, 그리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적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라기 3:1-5.

언약의 사자는 다니엘서의 시험 과정이 세 번째 시험에 이르고 지혜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이 시험을 받을 때, 심판 가운데 가까이 오신다. 다니엘서의 세 단계 시험 과정은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리고 지식이 증가하는 마지막 때에 시작된다. 그 지식의 증가는 나팔을 부는 택함받은 사자의 사역을 통해 분명해진다. 그 사자를 말라기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사자"라고 부르며, 언약의 사자는 불로써 누가 그분과 언약에 들어갔는지, 혹은 죽음과의 언약을 택했는지를 드러내신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1844년 10월 22일에 그리스도께서 홀연히 그의 성전에 임하셨는데, 이는 임박한 일요일 법령을 예표하는 이정표였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임하시는 것(다니엘 8:14에 제시됨), 다니엘 7:13에 제시된 인자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오시는 것, 그리고 말라기가 예언한 주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 것은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묘사하신 혼인에 이르는 신량의 오심으로 표상된다. 대쟁투, 426쪽.

다니엘의 세 가지 시험 중 마지막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에 일어난다. 그때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불로써 생명이나 사망과 언약을 맺은 자가 누구인지 드러내시는데, 이는 레위인의 맥락에서 이해된다. 말라기가 마태의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를 묘사할 때, 그들은 요한의 라오디게아인들과 빌라델비아인들이자 다니엘의 지혜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이며, 두 부류 모두 불로 시험을 받고, 그리하여 누가 레위인인지, 혹은 레위인이 아닌지가 드러난다.

레위인들은 금송아지와 관련된 두 번의 반역 가운데서 신실하게 서 있었던 자들을 상징한다. 첫 번째 반역은 아론의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반역이었다. 두 사례 모두에서 레위인들은 신실한 자들을 대표했으며, 이 두 사례는 속히 다가올 일요일 법령의 때에 레위인들로 대표되는 한 무리의 신실함에 대한 두 증인을 제시한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금은 바벨론의 상징이며, 송아지는 짐승의 형상이다. 그는 이어 절기를 선포했고, 어리석은 백성은 그 송아지 주위를 벌거벗고 춤추었다. 그들의 모든 반역의 전제와 동기는 선택된 사자인 모세를 거부한 데 있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당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큰 죄를 짓게 했습니까?" 아론이 말하였다. "내 주여, 진노를 크게 내지 마소서. 당신도 이 백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려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서 갈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떼어 가져오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는데, (이는 아론이 그들을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도록 벌거벗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모세가 진의 문에 서서 말하였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그러자 레위 자손이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진 가운데를 문에서 문까지 드나들며, 각자 자기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고, 그날 백성 가운데서 약 삼천 명이 쓰러졌다. 출애굽기 32:21-28.

춤추던 자들은 '자기들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드러낸 라오디게아인들이었으며, 이는 여섯째 재앙의 경고, 곧 현대 로마의 삼중 구성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경고이다. 그 경고는 여섯 재앙과 아마겟돈과 관련된 진리들을 파괴한 유라이어 스미스의 개인적 해석과 날카롭게 모순된다.

자신들의 라오디게아적 상태를 드러낸 이들은 선택된 사자의 권위를 거절했고, 사탄적 상징인 "the daily"를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의 신성한 상징으로 규정하기로 선택한 이들과 같은 혼란스러운 이해를 드러냈다. 그들은 자신의 해방을 상징적 신에게 돌렸지만, 그들이 경배하기로 선택한 그 신은 이집트의 신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집트는 용을 상징한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the daily"가 용인 이방 로마를 상징한다는 진리를 거절하고, 그 사탄적 상징을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인자야, 네 얼굴을 애굽 왕 바로에게로 향하고 그와 온 애굽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그의 강들 가운데 누워 있는 큰 용이라. 네가 이르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였다. 에스겔 29:2, 3.

아론과 함께 반역한 자들은 금송아지로 대표되는 용의 상징이 자신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해낸 신이라는 거짓을 믿었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the daily"로 표현된 이교 로마(용)의 상징이, 하늘 성소에서의 그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짓을 믿는다. 그들은 또한 택하신 사자를

거부했는데, 이는 "the daily"의 상징을 둘러싼 논쟁에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가 그랬던 것과 같다.

라오디게아 재림주의의 첫째 세대(1844~1888)에는 그들은 일곱 때를 식별한 밀러의 연구를 거절했다. 둘째 세대(1888~1919)에는 그들은 "the daily"의 진리를 거절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셋째 세대(1919~1957)에는 그들은 "네 백성의 강도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배도한 개신교의 이해로 되돌아갔다. 2001년 9월 11일에는 그들은 그날 세 번째 화가 임했을 때 성경 예언에서 이슬람의 역할을 거절했다. 그 네 가지 진리는 모두 밀러에 의해 지지되었고 하박국의 두 표에 나타나 있으며, 각각이 화잇 자매가 "택하신 자"라고 부르는 밀러의 사역에 귀속되는 기초적 진리들이다.

여로보암의 반역은 열 지파로 이루어진 북왕국이 시작될 때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세웠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벳엘에, 다른 하나는 '심판'을 뜻하는 단에 두었다. 벳엘과 단은 함께 교회(벳엘)와 국가(단)의 결합을 상징한다. 아론의 반역 때와 마찬가지로 그 송아지들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둘 다 짐승의 형상이었다. 또한 아론 때와 같이 여로보암은 연례 절기를 제정하고, 그 금송아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들이라고 하였다.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이르되, 이제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면, 이 백성의 마음이 다시 그들의 주, 곧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다. 이에 왕이 의논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이 너무 어렵도다. 보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였다. 그 하나는 벳엘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이 그 하나 앞에 경배하려고 단까지 갔다. 그는 산당을 짓고, 레위의 자손이 아닌 백성 중 천한 자들로 제사장들을 세웠다. 여로보암은 여덟째 달, 그 달 십오일에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같은 절기를 제정하고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하려고 벳엘에서 그렇게 행하였고,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벳엘에 두었다. 그는 여덟째 달 십오일, 곧 그가 스스로 마음에 정한 달에 벳엘에 만든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여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열왕기상 12:26-33.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속에서 고안한' 바를 행했는데, 이는 유라이어 스미스가 그 위에 자신의 예언적 모형을 세우기 위해 '사적 해석'을 도입한 일을 나타낸다. 여로보암은 아론의 본을 따름으로써 이집트의 신을 참 하나님으로 잘못 제시했다. 아론과 여로보암이 만들어 낸 신은 국가 권력과 교권이라는 로마의 이중적 본성을 상징하는 표상을 곡해하여 적용한 데 기초한 것이었다. 아론과 여로보암은 둘 다 용의 권세의 형상을 짐승의 우상이라는 상징과 동일시하였다. 그러므로 그 두 성경적 반역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큰 시험을 대표하며, 그 시험에 의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영감에 따르면 그 시험은 짐승의 우상의 형성에 관한 시험이다.

'네 백성의 약탈자들'을 로마로 보는 상징에 관한 첫 번째 논쟁은 1843년 개척자 도표에도 반영되었는데, 그 논쟁은 약탈자가 로마라는 사실을 제쳐두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그 약탈자로 주장했다. 그 첫 논쟁은 '네 백성의 약탈자들'이 로마라는 점을 둘러싼 마지막 논쟁을 예표하기도 했는데, 오늘날에는 로마가 아니라 미국이 그 약탈자라고 주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니엘 11장 10절부터 15절에서 안티오쿠스는 미국을 상징하므로,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시작의 거짓과 마지막의 거짓은 동일하다.

말세에 안티오쿠스가 무엇을 상징했는지를 둘러싼 어둠과 혼란은, 아론과 여로보암의 반역이 그랬던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 대한 혼란을 낳는다. 짐승의 우상에 대한 혼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큰 시험이 짐승의 우상의 형성인 바로 그때에 벌어지고 있다.

주께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임을 내게 분명히 보여 주셨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큰 시험이 되어, 그 시험으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입장은 모순으로 가득 뒤엉켜 있어 속아 넘어갈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주제는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11-17절, 인용].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다. 그의 율법을 지키고 거짓된 안식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증명한 모든 자는 주 하나님 여호와와 기치 아래 서게 될 것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진리를 포기하고 일요일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제15권, 15.

화이트 자매가 'the daily'가 이교 로마를 상징한다는 밀러의 견해를 지지했을 때, 그녀는 1844년 이후 복수로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져 '어둠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교 로마를 상징하는 'the daily'를 '네 백성의 강도들'로 보는 그릇된 견해가 빚어내는 혼란은 로마와 로마의 형상 사이의 구별에 관하여 혼란과 어둠을 낳는다.

로마의 한 상징을 둘러싼 최초이자 최후의 논쟁은, 제쳐지고 있던 옛 언약의 백성과 그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어 가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졌다. 그 논쟁에는 확립된 문법 규칙에 따르려 하지 않는 태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개신교도들이 14절의 "also"라는 단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강도들은 이전 절들에 나타난 동일한 세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티오쿠스를 '강도들'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성경을 곡해한 것이었다. 그것은 사사로운 해석이었다. 왜냐하면 진리에 반대되는 어떤 거짓 교리든 사사로운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 논쟁 자체가 기초적 진리가 되었는데, 이는 그것이 1843년 개척자 도표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영감에 의해 그 도표가 확증됨으로써 '강도들'이 로마를 상징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입증되었고, 그 진리의 중대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왜냐하면 그 교리를 거절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와 '예언의 신'의 권위 둘 다를 거절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로마를 가리키는 '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천사들이 윌리엄 밀러에게 준 예언적 모형에 보태어졌다. 이는 그것이 그가 이해하고 제시하게 된 예언적 모형과 일치했기 때문이며, 곧 그의 모든 예언적 적용의 토대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였다는 점이다.

우리야 스미스가 다니엘 11장 36절의 북방 왕을 프랑스로, 이어 40절에서는 터키로 지목한 사적 해석은 북방 왕을 두 차례 잘못 규정한 것이었다. 스미스가 1863년에 그 토대를 거부한 일은 그를 눈멀게 하여 예언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보지 못하게 했다. 곧 대략 그리스도 시대 무렵에, 예언은 고대의 문자적 실체들이 예표했던 현대의 영적 실체들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바울은 먼저는 문자적이고 그 후에는 영적이라고 밝히며 이 진리를 분명히 가르쳤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것이 아니요, 자연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46.

스미스는 배도한 개신교를 대신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 백성에 속했지만, 그는 '일곱 때'를 거부하고 1863년 도표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반역을 옹호했다. 그의 사사로운 해석을 적용한 결과 요한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생겨났는데, 이는 로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르치는 또 다른 시험이다.

강도들에 관한 첫 논쟁에서 스미스는 열 처녀의 비유의 최초의 성취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대표했다. 따라서 그는 북방 왕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견해로, 그들이 라오디게아적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되어 가던 1856년부터 1863년 사이에 제쳐지고 있던 언약의 백성을 대표한다. 강도들 논쟁에서의 개신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스미스는 자신의 사적 해석으로 그 본문을 왜곡하면서 그 문법적 권위를 무시했다. 문법적으로 31절부터 45절까지의 북방 왕은 항상 그리고 오직 교황권이기 때문이다.

'the daily'를 둘러싼 논쟁이 일면서, 윌리 화이트와 A. G. 대니엘스는 'the daily'가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을 나타낸다는 오래된 개신교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거짓을 재림 역사에 도입했다. 그 특정한 역사는 하박국의 표들에서 확인되었지만, 잘못된 견해의 홍보와 확립에 수반된 거짓 증언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과 거짓을 믿는 자들의 대조가 쟁점인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올바른 이해를 밀러가 인식했기 때문이다.

"the daily" 논쟁은 로마의 최종 논쟁이 성령이 부어지는 때에 일어난다는 한 줄 한 줄 더해 가는 이해에 보탬이 된다.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는 동안, 아래로부터 오는 권세가 일어나 그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사로잡는데, 그것은 강력한 미혹이다.

대립 중인 두 거대한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래에서, 다른 하나는 위에서 역사한다.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의 은밀한 영향력 아래 있으며, 그의 행위는 자신에게 작용한 감화의 성격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일할 것이다. 사탄과 연합한 자들은 그들의 지도자의 감화 아래서 일하며,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대항할 것이다.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게 행하도록 남겨져 있으며, 그 행동을 통해 어떤 영이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The 1888 Materials, 1508.

'the daily' 논쟁에서의 예언적 대조는 용의 상징을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발견한 밀러의 역할도 거부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거부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2001년 9월 11일 직후에 발생한 로마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가장 흥미로운 때에 살고 있다. 만물의 끝이 가까이 왔다. 놀라운 전개들이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일하고 있어, 극심한 활동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 오는 어둠의 권세가 인간 대리자들에게 역사하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천사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 맞서 싸우고 있다. 동시에 위로로부터 오는 권능은 신적 영향에 순복하려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지성 존재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각 사람의 영혼 위에 임하여 그를 시험하고 연단할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참되고 진실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야 한다. 우리는 형식이나 고백, 의식이나 지위에 의지할 수 없으며, 우리가 살아 있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시험의 날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흔들릴 것이며, 이 마지막 날들의 속임수와 미혹에 의해 흔들릴 수 없는 것들만이 남을 것이다. 영혼을 영원한 반석에 단단히 고정하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전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위험의 때라고 묘사하셨다. 그는 말씀하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룯의 날에도 그와 같았나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이 모일 것이요, 그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그들을 서로 구분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리라." 이 생애에서 우리의 행로가 저기에서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과 함께할지, 아니면 바깥 어둠으로 들어가는 자들과 함께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마련을 하셨다. 그러므로 무한한 대가로 사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스 인스트럭터, 1893년 8월 3일.